



첫회, 정도령을 만나고부터 행복과 기쁨이 찾아왔다

할아버지들로부터 “한국에는 의인들이 많다. 그런데 그걸 알고 일본놈들이 산의 맥을 끊어버렸다. 그래서 혈이 끊어져 큰 일이다. 아마 너희 시대에는 정도령이 오시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다. 그러다보니 정도령이 오실 거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박혀 있었다



21일 공부를 하니 하나님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누리며 희망차게 살 수 있겠다는 마음이 일어났다. 또한 정도령님 말씀을 들으니 무엇이든 안 된다는 생각은 하나도 없고 마음만 먹으면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어 마음이 부자가 된 듯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았다

어려서 할아버지로부터 너희 세대는 정도령을 만날 거라는 말씀을 들었다

나는 진주에서 농부의 딸로 태어났다.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작은 외할아버지는 한문공부를 많이 하셨다고 한다. 그러한 할아버지들로부터 “한국에는 의인들이 많다. 그런데 그걸 알고 일본놈들이 산의 맥을 끊어버렸다. 그래서 혈이 끊어져 큰 일이다. 아마 너희 시대에는 정도령이 오시어 좋은 일이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을 어려서부터 듣고 자랐다. 그러다보니 정도령이 오실 거라는 할아버지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박혀 있었다. 우리집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괜찮았는데 초등학교 1학년 때에 6.25전쟁이 일어났고, 그때 아버지는 빨갱이로 몰려 총살되었고, 동생도 죽었다. 아버지와 동생을 잃은 어머니는 인민군들이 동네에서 판을 치니 남편과 자식을 잃은 쓰라린 마음을 추수를 여유도 없이 나와 사촌오빠 4명을 데리고 강 건너 산 바위 밑으로 피난을 가셨다. 철없는 어린애들을 데리고 피난을 했으니 어머니의 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런 어머니를 생각하면 지금

도 눈물이 나고 가슴이 미어진다. 전쟁이 끝나자 어머니는 오빠들하고 진주로 가서서, 집도 없고 돈도 없더니 자연히 어머니와 나는 헤어지게 되었다. 어머니는 진주에서 오빠들 뒤처닥거리 해주면서 공장일 다녔다. 어머니와 따로 살게 된 나는 초등학교 3년 다니다 형편이 여의치 못해 학교를 그만 두고 큰집에 일하러 다녔다. 큰집 아이들 보라, 부엌일 하라 어린 나이에 너무 일이 많아서 참 힘들게 살았다. 남편은 엄마와 같이 사는데 난 어머니와 떨어져 살면서 고생을 많이 하니 엄마가 너무나 보고 싶고 그리웠다. 어쩌다 한번 온 엄마를 만나면 진주까지 쫓아가서 같이 살고 싶은데 여건이 못 돼서 어린 나이에 그제 한이 되어 가슴에 못처럼 박혔다. 그러다가 어찌어찌해서 엄마와 같이 살게 되었는데 너무나 마음이 포근하며 좋았는데 그것도 길게 가지 못했다. 큰어머니가 우리집을 몰래 팔아버렸고, 졸지에 집에서 쫓겨난 엄마와 나는 또 헤어지게 되었다. 엄마는 부산에 가서 둔 번 다음에 같이 살자고 하면서 날 외갓집에 맡겼고, 난 외할머니와 같이 사는 것이 큰집 생활하는 것보다는 좋

았지만 엄마가 보고 싶어 항상 엄마를 기다리고 기다리며 우는 어린 시절을 보냈다. 그 후 자라서 결혼하면 좀 좋아지려나 했지만 그렇지 않았다. 남편은 마음은 착하고 좋은데 몸이 약하다보니 힘든 농사일을 하고 나면 술로서 피로를 풀고 담배로서 스트레스를 풀고 그랬다. 남편이 몸이 약하다보니 나는 '어떻게 하면 남편 술과 담배를 끊을 수 있겠나' 하는 게 소원이었다. 시어머니가 절에 열심히 다녀서 나도 절을 30년 정도 다녔는데 남편을 위해서 아무리 불공을 드려도 남편이 몸이 좋아지지 않았다. 술 담배도 끊지 못했다. 그 후 친척 오빠가 대순진리회에 가면 북을 받겠다고 하여 대순진리회를 가게 되었는데 남편도 대순진리회에 인도(入道)시켰지만 남편이 술과 담배를 끊지는 못했다. 대순진리회를 한 2년 다녔지만 이치적으로나 교리적으로나 마음에 흡족하게 들어오지 않았다. 대순진리회는 예법(禮法)을 지켜야 된다고 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하는데 교리를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아 공경한

것이 많은 채로 그냥 다녔다. 거기서 미륵부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들은 게 소독이라든 소독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사담담게 잘 살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항상 궁곰해 하였다. 1989년 어느날 부산 사촌 여동생 집에 놀러갔다가 미륵부처님 얘기가 나왔는데 동생 남편이 “생미륵부처님은 승리제단에 가면 만날 수 있다. 미륵부처나 정도령님은 한 이름이니 한번 말씀을 들어보세요” 하기에 부산승리제단으로 동생하고 같이 가게 되었다.

정도령님을 처음 본 날 너무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거기서 비디오 예배를 보며 말씀을 들으니 처음 듣는 음성인데 천둥번개 소리와 같은 사자후의 음성이고, 찬송하는 소리가 뇌리를 강하게 때렸다. 보통사람으로서는 낼 수 없는 높고 강한 혼신의 힘을 다해 찬송하는 음성은 말 그대로 신의 음성이었다. 사람 같으나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옛날에 할아버지께서 한국 땅에는 의인들이

많이 나온다는 말씀을 들은 기억이 나서 이번이 정도령님이 보다 하고 생각했다. 동생 집에서 정도령님에 대한 여러 말씀을 들으니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희망이 생겼다. 이 종교 저 종교 믿으면서 여태껏 살아도 그저 그랬는데 이제는 고생스런 이 팔자를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정도령님이 오셨으니 꼭 진주제단에 찾아가겠다는 마음을 먹었다. 그래서 먼저 남편을 부산승리제단으로 보내서 21일 공부를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더니 결국 병이 들어 1989년 겨울에 그만 세상을 버리고 갔다. 그때 내 나이는 45세였다. 진주제단에 가서 승사님을 만나 21일을 하기로 하였는데 내가 사는 곳은 사천시 골 명면이기 때문에 21일을 하려면 진주에서 이틀을 머물러야 되었다. 내가 사는 곳에서 진주까지는 60리 길이라 막차 버스를 타고 출발하여 진주제단에 와서 오후 7시를 보고 하룻밤 자고 다음날 아침 7시 예배를 보고 집으로 갔다가 다음 날 오후 7시에 다시 제단에 와서 예배를 보는 생활을 하였다. 예배 보러 가는 날은 친정어머니 집이 진주 근처라 그곳에

서 잡자리를 해결했다. 21일 공부를 하니 하나님으로 거듭나서 영생을 누리며 희망차게 살 수 있겠다는 마음이 일어났다. 또한 정도령님 말씀을 들으니 무엇이든 안 된다는 생각은 하나도 없고 마음만 먹으면 이루어진다고 생각되어 마음이 부자가 된 듯 그 누구도 부럽지 않았다. 제단에 예배 보러 갈 생각을 하며 이를 할 일을 하루에 해치우는 데도 너무 재미있어 시간 가는 줄 몰랐다. 정도령님께서 분신으로 일을 해주시는 게 분명했다. 설날이건 추석이건 열 일 백일 다 제쳐놓고 제단에 가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주의의 사람들이 정도령한테 미쳤다고 하면 이런 저런 모양으로 핏박을 하였지만 내 인생은 내가 산다하면서 정도령님 능력으로 지혜 있게 해서 나가니까 모든 일들이 잘 풀리게 되니 무서운 것이 없었다. 드디어 21일 마치고 매일 예배를 제단으로 가서 볼 수는 없으니 비디오로 집에서 예배를 보니 집안이 천국이 되어 버렸다. 일하며 찬송가를 하니 정말 은혜가 되며 시간 가는 줄 몰랐다.*

행명점/진주제단 부인회장

개벽(開闢)의 문자적 의미를 먼저 살펴보자. 개벽이란 단어는 수운선생과 증산선생 이후로 최근에 더욱 자주 사용되는 듯하다. 개벽이란 '천지개벽' 또는 '천개지벽'의 준말로써 하늘이 새로 열리는 것을 '天開' 땅이 새롭게 열리는 것을 '地闢'이라고 한다. 하늘과 땅이 새롭게 열린다, 새 하늘 새 땅(신천신지)이 열린다는 말이다. 天開於子(하늘은 자에 열리고) 地闢於丑(땅은 축에 열리며) 人生於寅(사람은 인에 나고) 物生於卯(만물은 묘에 나고)로 천지인 만물이 차례로 생겨나 이때부터 인류역사가 시작되니 선천의 시작이라. 선천은 복희씨와 주나라 문왕이, 후천은 수운선생과 증산선생이, 종천은 목운과 금운이 천지공사를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이니 이것이 소위 6도3략 운행지도라 하는 것이다.

성경에도 새 하늘 새 땅에 대한 구절이 있기도 하지만 수운선생과 증산선생을 신앙하는 또는 그에 영향 받은 소위 민족종교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풍양의 역학과 연계하여 특히 민족종교 분야에서 중요한 의미로 쓰이고 있는 것이다. 기울어진 지구의 축이 바로 서는 개벽 또는 우주 개벽 등으로 천체의 변화와 함께 이해되어 거대 담론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종교와 관련하여는 특별히 주의 할 부분이 있으나 종교가 그 본질이 마음을 중심으로 하여 진리를 구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자칫 역학이나 별들의 움직임 등 천문을 탐구하는 분야로 빠져들어 마음의 새로운 변화라는 종교의 본래 목적과는 거리가 멀어지게 되는. 그러니까 본말이 전도되는 현상이 없지 않는 것이 작금의 현상이다. 기울어진 지축이 바로 섭으로 육지가 바다가 되고 바다가 육지가 되며 괴질이 돌아 많은 인간이 죽게 된다는 논리로 순진한 신도를 공포로 몰아가는 일부 교단의 병폐의 소식이 들릴 때면 안타까운 심정을 금할 수 없다.

마음의 개벽이 천지개벽의 진정한 의미이다

그렇다면 개벽의 참뜻은 무엇인가? 무릇 마음 밖의 것을 추구하거나 매달리면 외도(外道)가 되며 정도(正道)가 아닌 것이다. 마음의 외적 투영이 곧 외부세계 즉 만물과 우주일진대 마음이 바르면 사회가 국가가 지구가 나아가서 우주가 바로 서는 것이요 마음이 바르지 못하면 모든 것이 바르게 서지 못하는 것이다. 일체유심조가 바로 그 말이다. 수운선생은 道氣長存邪不入(도의 기운을 길어 보존함에 사투한 것이 들어오지 못하고)을 말하였고 증산선생은 眞心堅守福先來(참된 마음을 굳게 지키면 복이 먼저 오느니라)라 하였으니 다 마음을 말한 것이다. 도를 닦는다는 것은 마음의 새로운 변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것이다. 마음속의 잡되고 삿된 마귀를 없애고 '참나(진아)'를 찾아야 하는 데서 그 참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참 나를 찾는다는 말은 현재의 나라는 것이 '거짓 나(가아)'라는 것을 이미 전제한 뜻이다. 참나(진아)는 하나님의 신이 살고 있는 집(眞我是一神收居之宮)이요 거짓 나(가아)는 마귀신이 살고 있는 집(假我是一魔收居之宮)이다. 현재의 나라는 의식인 거짓 나(가아)를 없애고 참나(진아)가 나라는 자리에 좌정하게 되면 마음속에서 개벽이 이루어졌다가 되는 것이니, 개벽의 본질은 마음 개벽을 말하는 것이다. 마음 개벽을 이루어 내기 위해 도를 닦는 것이 바로 정도가 되는 것이다. 마음 개벽의 주인공을 증산선생을 신앙하는 곳에서는 개벽장이라 하는 것이다. 하늘도 뜯어고치고 땅도 뜯어고치

開闢(개벽)



개벽은 마음의 개벽이지 우주의 변화가 아니다

는 천지공사는 마음을 뜯어 고치는 공사인 것이다. 마음속의 묵은 천지(구천지 삼극 대원대한)를 새 하늘 새 땅(신천지 상생 대자대비)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말한다(도전11:345:2). 인간의 마음이 개벽되면 지구가 개벽되고 나아가 우주가 개벽되니 이와 같은 대 개벽공사를 천지공사라 이름하는 것이다. 증산선생이 말하기를 '마음 고치기가 죽기보다 어려우니라' 하였으니 마음 고치기가 마음 개벽이며 마음 개벽은 아주 어렵다는 뜻이다. 개벽이라는 말은 혁신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요, 일일신우일신(日日新又日新) 즉 날마다 더욱 새로워져야 함을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륵님은 혁신불이라고도 부르기도 한다.

현재의 나는 마귀신이 되는 거짓 나(가아)가 되므로 내가 도를 닦아 도통을 한다, 구원을 얻는다, 천당 간다,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요, 나라는 것은 없애버려야 할 대상이지 내가 수도를 해서 무엇이 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다. 마귀가 굳이 수도를 한다면 마귀의 도를 닦아 단수 높은 마귀는 필자연정 천당 선경에서 살 수 있는 하나님은 될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현재의 나인 거짓 나를 없앨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마음개벽을 이루어 낼 수 있을까? 여기에서 우리는 마음개벽의 완성자인 참스승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절실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참 스승은 누구인가? 마음개벽을 실제로 완성하신 분이 진정한 참 스승이 됨은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참 스승을 찾는 비밀 코드: 伊字三點(이지삼점)

마음 개벽의 완성자인 참 스승을 유불선의 경전을 통해 찾아 보자. 불교의 열반경(면 훗날의 비밀이 감추어져 있다고 해서 비밀장(秘藏)이라고도 함)의 伊字三點(이지삼점)이라는 용어 속에 그 비밀이 숨겨져 있다. 세 부처가 차례로 나와 한 부처에게로 일체를 이루어야 이(伊)자를 이루는 진짜 미륵 부처님이라는 뜻이다. 마혜수 라왕의 이마에 눈이 셋이 있는 것 같이 세 분의 진인이 합해져서 한 분 안에 모여 하나가 된 것이 바로 여래의 비밀장이다. (.)이 바로 이라고 발음이 되는 글자로서 미륵부처님의 출현의 비밀을 표현한 것이다. 그 세 분 중 한 분은 여성이며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여성이니 가린 즉 묘하고 드러난 즉 묘하지 않다.) 격양유록의 무용출세지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 “一人鷲嶺開國之臣十人生產一男一女辰巳真人”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신하 한 사람이 하늘의 사람 일남 일녀를 영적으로 낳으니 진사성인 이시라. 삼기 불경의 내용과 똑 같지 않은가? 진인과 미륵부처와 구세주 하

나님, 이진자 등은 같은 뜻의 다른 표현이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말과 한 감람 나무와 두 가지(속:4:11)에 그 비밀이 있다. 증산 선생은 '내 뒤에 추수할 두 사람이 나온다.'라고 하였으며 육도삼락운행지도를 보아도 수운선생(1.6수) 54궁을 이어서 증산선생이 2.7회63궁(3離火)이 나오고, 뒤이어 3.8목의 72궁과 4.9궁의 81궁의 두 사람을 말하는 것이다. '차마 밑에서 대도통난다'는 증산선생의 말도 역시 같은 뜻이다. 그러면 참스승을 찾는 현실적으로 확실한 방법은 무엇인가? 첫째, 사람 몸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둘째, 감로해인(이슬성신/감로수/생명과일)을 내려 준다. 셋째, 풍운조화를 일으키고 한다. 넷째, 신미생으로서 북방불기 3007년(1980년)에 무극대도를 완성하시고 50세에 도통하셨다.(증산선생이 말한 이윤의 도수) 다섯째, 가짜 구세주 마귀의 음해와 핏박을 받아 7년의 육고를 치르셨다.(증산선생이 말한 문왕도수) 여섯째, 나라는 의식이 마귀이므로 반대세력으로 그 마귀를 죽이도록 가르치신다. 일곱째, 이 세상 사람을 구세주 하나님(미륵부처)으로 거듭나게 하신다 등등이다.

위 사항이 하나도 빠짐없이 해당되시는 분이냐. 참 스승을 만나기 어렵지만 만나면 되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를 죽여 없애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아무리 좋은 문전축담이 있어도 씨를 뿌려야 싹이 나고 김을 매어야 가을에 추수할 것이 있는 것이다. 머릿속에 아무리 지식이 많아도 참스승을 만나서 나 자신을 죽여 없애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이다. 눈 밝은 자 귀 밝은 자는 인연을 살려 진리에의 여정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권하는 바이다.*

박명학 / 본부제단 myunghpark23@naver.com